주일 메시지 요약 **2026년 10월 18일**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몸 히10:1-10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으로 운행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믿을 불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알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여 그렇게 되었는지를 질문하면 우리에게도 대답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믿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아느냐고 물으면 우리의 대답은 그렇게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나 기도나 보혈, 언약 등 우리가 늘 말하는 단어들에 대하여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고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대답이 선명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RT와 TCK 전도학 메시지에 왜 3단체에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들이 네피림 운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귀신 운동을 말합니다.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영적인 운동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원죄와 그 원죄에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답을 아는 자들은 그 이유를 알 것입니다. 분명히 거기에 영적인 존재가 있고 답도 영적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당연히 반드시 영적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답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인생 밖에 될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마 원리를 아는 사람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왜 우리는 응답에 갈급합니까. 우리의 삶이 영적이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데 나는 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통합니다. 내 기도는 영적인가. 사단의 머리를 깨는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육신적인 기도에 불과한가. 언약으로 사는가. 신앙 생활이 얼마나 영적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귀신을 세상에 전달하기 위하여 모든 문화를 온통 귀신으로 바꾸었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성령에 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는 성령 들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6:33이나 갑절의 영감과 같은 단어들이 들어오고 777 기도가 되어지면 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가장 기초 그리스도 3직이 내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즉시 영적인 세계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안에 약속된 3직에 대한 이해와 누림을 통하여 나와야 정상이 됩니다. 물론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한 몸

1) 5절 말씀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으로 드린 장면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40편에서 온 말씀인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예언의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 시22:1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110:1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4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2편은 다윗이 기록하였다는 명시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다윗의 시라고 해석을 합니다. 시2: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3) 뿐만 아니라 오늘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것도 시40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4) 이 "나를 위하여 예비된 한 몸" 에 대하여 오늘 히 10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으며 만일 그 제사가 사람을 영원히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 드리는 일을 그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5) 4-5절 이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한 몸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6)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이후에 더 설명하시기를 11-12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7) 그리고 16절에 렘31:33 이하를 인용하여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이후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고 결론지으셨습니다.
8)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결과입니다. 언약이 완성되었고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요19:30)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와 있고 모든 것이 우리 하는 것에 다 달려 있습니다.
9) 마11:12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도 하면 온다는 것입니다.
10) 한나처럼 내 육신적 목적을 위하여 기도를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시면 그 즉시로 답이 나고 정복하여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루신 것에 눈만 열리면 될 것입니다.
11) 이 시간표를 지나면 내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고 영적인 무기가 되어 뱀의 머리를 깨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 가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보혈과 원죄와 사단과 귀신에 눈이 계속 더 열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소원과 마음이 이해가 되고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WIOS이 서고 OURS으로 가는 것입니다.
12) 이렇게 하여 내 모든 생각과 삶이 영적인 것이 되고 모세처럼 요셉, 다니엘, 바울,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응답은 기도해서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13) 기도로 응답 받는 것은 숫자적으로 따지면 아주 소수입니다. 그런데 소수로 특별하게 받는 이런 응답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 많은 인물들이 다 이랬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깨달음의 정점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한 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보이면 하나님은 그냥 이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분이 하신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